

“5·18 그린 작품 각인... 몸의 언어로 광주 아픔 승화”

‘한국발레협회 신인상’ 광주시립발레단 이상규 발레리노

한국발레협회가 발레계 미래를 열어갈 재목에게 수여하는 ‘한국발레협회 신인상’ 수상자로 최근 광주시립발레단 이상규(31) 발레리노를 선정했다.

지난 9일 밤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여태 무용수로서 노력하며 쉴 틈 없이 도약했던 시간들을 보상받은 기분”이라며 “상을 받기 전까지 실감나지 않았는데 상패를 거머쥐는 순간 더 열심히 하라는 ‘체적질’ 로 다가왔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한 이 발레리노는 2019년 12월 광주시립발레단에 입단, 그동안 ‘DIVINE’이나 ‘지젤’, ‘코펠리아’ 등 굵직한 작품에서 주역을 맡아 왔다. 오는 20~21일에는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호두까기 인형’에 호두까기 왕자 역으로 캐스팅 돼 각고의 노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발레 ‘지젤’에서 알브레히트 역을 맡았던 모습.

한예중 졸업...2019년 입단 ‘DIVINE’·‘지젤’ 등 주역 열연

5·18, 자료 찾아가며 공부 발레 매력은 몸의 노력 따른 보상

20~21일 ‘호두까기 인형’ 공연

가장 기억에 남는 배역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는 작품 ‘DIVINE’이 아직까지 뇌리에 각인돼 있다”고 답했다.

특히 광주 출신인 박경숙 단장(예술감독)과 주제만 안무가에게 실제 경험을 들으며 이를 연기로 표현했던 과정을 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신인상 수상과 함께 광주시립발레단 ‘DIVINE’은 한국발레협회 작품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이어 “‘DIVINE’은 대중적으로 익숙한 모던발레라기보다 전위적인 컨템퍼러리 작품에 가까웠기에 움직임 표현이 쉽지 않았다. 한창 연습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몸에 담이 걸릴 정도였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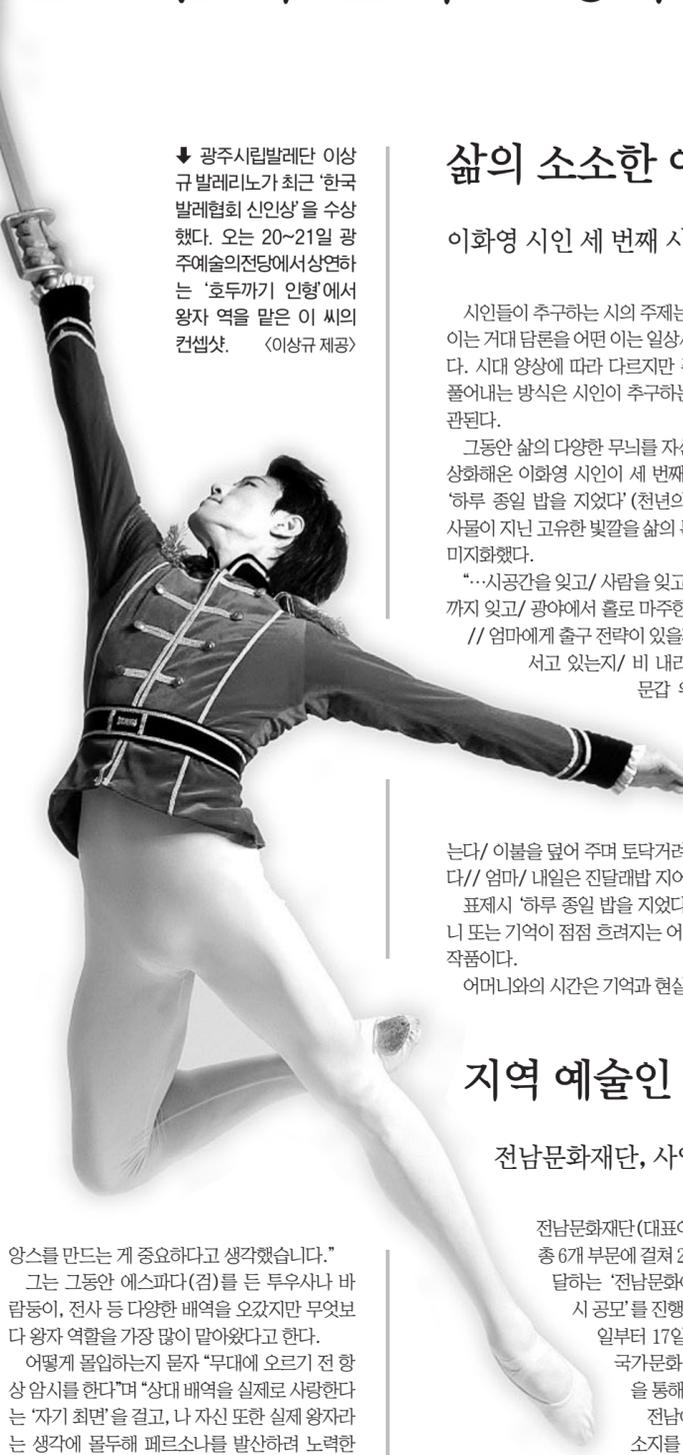
대구 출신인 그는 “5·18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광주의 아픔을 숙회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2장 ‘기도’에서 영령들의 희생, 고통을 상징하는 초대형 암막을 허리에 두른 채 춤췄던 클라이막스는 관객들을 매료시킨 미장센이었다.

쉽게 토로하기 어려운 발레리노의 고충도 묻자 그는 “그랑 파드되(2인무)를 할 때 ‘발레 특성상 남성 무용수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발레리나에 포커스가 가야 하기에, 무대에 오르면 늘 짐작해야 하는 점이 쉽지 않다’고 했다. 설령 상대 배역이 실수를 해도 중심을 유지해야 극이 끊어갈 수 있다는 것.

그는 ‘DIVINE’ 연습 당시 반라상태로 안무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언급했다. 물론 실제 무대에서는 의식되지 않았으나 리허설은 비교적 밝은 공간에서 진행하기에 “돌아쳐보니 삼각팬티 안 입고 춤췄던 게 조금은 민망하다”며 웃어 보였다.

발레의 매력으로 꼽은 것은 “몸의 노력에 대해 거저 없는 보상이 돌아온다”는 점이다. ‘지젤’, ‘코펠리아’ 등에서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동작도 선율과 호흡에 익숙해지다 보면 점차 가능해졌다.

“다가오는 ‘호두까기 인형’ 공연은 손끝이나 발끝 등 포인트 묘사와 밝은 분위기를 그리는 데 전념하고 있어요. 클래식 중에서도 고전으로 손꼽히는 작품이기에 연기적인 요소보다 전체 워



↓ 광주시립발레단 이상규 발레리노가 최근 ‘한국발레협회 신인상’을 수상했다. 오는 20~21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상연하는 ‘호두까기 인형’에서 왕자 역을 맡은 이 씨의 컨셉샷. <이상규 제공>

양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에스파다(검)를 든 투우사나 바람둥이, 전사 등 다양한 배역을 오갔지만 무엇보다 왕자 역할을 가장 많이 맡아왔다고 한다.

어떻게 몰입하는지 묻자 “무대에 오르기 전 항상 암시를 한다”며 “상대 배역을 실제로 사랑한다는 ‘자기 최면’을 걸고, 나 자신 또한 실제 왕자라는 생각에 몰두해 페르소나를 발산하려 노력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앞으로 그는 “원대한 목표만 집착하기보다 눈앞에 주어진 일상에 충실한 발레리노”가 되고 싶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리허설이 끝나는 오후 4시까지, 불꺼진 연습실에 남아 오늘의 ‘몸 언어’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삶의 소소한 이야기 ‘어머니와의 시간’

이화영 시인 세 번째 시집 ‘하루 종일 밥을 지었다’ 펴내

시인들이 추구하는 시의 주제는 다채롭다. 어떤 이는 거대 담론을 어떤 이는 일상사를 다루기도 한다. 시대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주제를 접근하고 풀어내는 방식은 시인이 추구하는 작품세계와 연관된다. 그동안 삶의 다양한 무늬를 자신만의 언어로 형상화해온 이화영 시인이 세 번째 시집을 펴냈다. ‘하루 종일 밥을 지었다’(천년의시작)는 대상과 사물이 지닌 고유한 빛깔을 삶의 본질과 연계해 이 미지화했다. “...시공간을 잊고/ 사람을 잊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잊고/ 광야에서 홀로 마주한 세상 끝의 얼굴 // 엄마에게 출구 전략이 있을까/ 어느 문을 나서고 있는지/ 비 내리고 출다// 남은 문갑 위에/ 이름 모를 분홍 조화/ 말 없는 꽃은 이쁘다/ 한 방에 이불을 펴고 눕는다/ 이불을 덮어 주며 토닥거려 주던 손길이 없다// 엄마/ 내일은 진달래밥 지어드릴게요” 표제시 ‘하루 종일 밥을 지었다’는 부재한 어머니 또는 기억이 점점 흐려지는 어머니를 초점화한 작품이다. 어머니와의 시간은 기억과 현실, 대상과 상상 등



이화영 시인

상반된 관계 속에서 서정적으로 그려진다. 일상이 지닌 삶의 소소한 이야기는 화자의 시선과 맞물려 잔잔한 울림을 준다. 화자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선, 사물의 속성을 헤아리는 심상은 깊고 따스하다.

유성호 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그 세계는 사유의 밀도와 어법의 활력 그리고 세상을 근원적으로 투시하고 포착하려는 시선을 가득 품고 있다”고 평한다.

군산 출신의 이 시인은 ‘정신과 표현’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한양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시집 ‘침향’, ‘아무도 연주할 수 없는 악보’를 펴냈으며 한국시인협회와 한국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 예술인 6개 분야 창작 활동 지원

전남문화재단, 사업비 26억여원...다음달 6~17일 사업 공모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 총 6개 부문에 걸쳐 25억6000만 원에 달하는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을 공모를 진행한다. 내년 1월 6일부터 17일(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전남에 거주하거나 주소지를 둔 예술인(또는 문화예술단체)을 대상으로 창작공간지원, 자율기획형,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지원, 청년예술가 활동지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예술활동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접수를 받는다. 재단은 지원방법과 사업별 내용을 안내하는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11일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오색동을 시작으로 16일 순천 전남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 17일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 공연장에서 각각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가능하다. 2024년도 문화상 수상자 또는 명예예술인, 장애 예술인이 대표자면 우대 선정하며 결과는 행정, 서류, 인터뷰를 거쳐 2월 17일 재단 누리집 등에서 발표.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지역 예술인을 지원해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운남도’를 만드는 것은 재단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